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UPS(무정전전원장치) 협의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대한전력전자의 이길호 대표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돼 왔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전개될 경쟁입찰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한해의 주된 사업방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제시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소규모 기업간의 인수합병이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원가절감, 공동기술개발 등의 대처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력전자(대표: 이길호 http://www.dhups.com)는 지난 1988년 창업한 이래 줄곧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한 분야에 집중해 왔다. 창업초기에는 UPS에 대한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았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반도체기술과 IT산업의 발전으로 고도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컴퓨터, 서버 등 각종 전자기기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와 전산화에 의한 정보처리 및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의 시스템화로 모든 전자장비의 시스템 운영에 높은 수준과 양질의전력 공급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UPS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대한전력전자는 UPS 한 분야만을 고집하면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BANDI'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의 귀중한 자료와 데이터를 불안정한 전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대한전력전자는 '고객의 만족' '무결점' '신속한 서비스'란 품질목표를 기반으로 탄생한 'BAND'라는 브렌드 가치를 더 한층 높이고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 품질보증 및 신뢰성이 높이 인증되는 ISO-9001 인증, 'Q' 마크 및 해외인 증인 'CE' 마크 등의 안전인증 획득은 물론 고효율 기자재 인증도 획득하였으며, 고객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유망 중소기업과의 아웃소싱과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실로 내년 상반기중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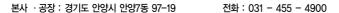
한편 지난해 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대한전력전자는 올해 약 45억의 매출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매년 매출대비 5%이상 신규투자를 하고 있다.



■ 교육을 통한 내실 강화

대한전력전자의 사훈에는 '창의적인 사람' '실천적인 사람' '신 뢰받는 사람' '하나되는 우리'처럼 유난히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는 이길호 대표의 지론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대한전력전자는 매주 고 정적으로 직무교육과 주제를 정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인성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이 가 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격주휴무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있으며 업무를 다방면 으로 경험하여 모든 업무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업무로테이션 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전력전자는 이 같은 내실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인 목표인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반디 UPS

• 특정

- 고효율, 저소음 고주파 스위칭 IGBT 인버터 채용
- 전면 LCD 디스플레이 및 운전계통도 표시
- UPS 자체 진단기능 지원
- 절전 그린기능 내장
- AVR 기능 내장
- 과전압, 과전류, 서지 보호회로내장 및 EMI 필터 내장 으로 인한 고주파 감쇄
- 배터리 잔여 용량 및 LOAD율 표시